



##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 뜨거운 여름날, 열정이 살아 숨 쉬는 계절 8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안녕하세요. 교정사목 봉사자, 후원자 여러분,

더운 여름은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름이 되면 뜨거웠던 열정의 시간이 다시금 살아 숨 쉬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여름은 그 무엇보다도 해맑은 웃음소리와 더불어 기쁨의 영성이 살아나는 신앙학교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에도 고봉중고등학교에서 40명의 친구와 함께 종교 수련회 활동으로 ‘여름신앙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재미와 기대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신앙학교를 통해 신자가 아닌 아이들에게 천주교를 소개하게 되고 또 그중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니 이 얼마나 뜻깊은 자리가 아닌지 모릅니다.

또한 만델라 학교에서도 여름을 맞이하여 ‘일일교장학교’를 진행하며,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성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아이들이 신부님이라는 호칭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 주니 이것만으로 첫 선교의 장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청소년들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최대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죄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기쁨이 다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 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정릉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6월 15일(토)~16일(일) 정릉동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교정사목의 신부님들은 강론을 통하여 비신자였던 교도관이 종교활동을 함께하며 세례를 받으신 사연, 수용자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며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의 헌신에 진심을 느껴 눈물을 흘리고 드릴 건 기도뿐이라며 목주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연, 불우수용자 가족의 병원비 및 미성년자들의 학업 도움을 지원해 주는 사연과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정릉동성당 신부님과 신자분들, 더불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 한국가톨릭전국교정사목협의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모임) 총회



6월 15일(토)~16일(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한국가톨릭전국교정사목협의회 성심회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년에 한 번 천주교 신자 교도관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수용자들을 위해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일하는 교도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교도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성지순례



6월 23일(일)~24일(월) 기쁨과희망은행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운영위원들과 전주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초남이성지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는 지금의 전동성당 자리에서 순교하였고, 치명자산은 '천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의 '치명'으로 유항검(아우구스티노)과 그의 부인 신희, 동정 부부로 순교한 큰 아들 유중철(요한)과 며느리 이순이(루갈다), 둘째 아들 유문석(요한), 제수 이육희, 조카 유중성 (마태오)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희생하신 순교자들의 뜻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7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최남식 베드로 신부(살레시오회)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최남식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요즘 고봉중고등학교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청소년이 방황하기 시작한 곳은 가정인데, 가정에서 사랑받았다면 절대 가정 밖을 벗어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만나 예비자가 되고 퇴소 후에도 살레시오회 미사에 함께 초대하여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정시설의 모든 수용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を 전합니다.

## 서울남부구치소 흑서기 초복 삼계닭 지원



7월 11일(목) 올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남부구치소 전체 수용자(2,500개)에게 흑서기 초복 삼계닭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이 더위로 지친 체력을 보양식으로 보충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점점 불볕더위와 폭우가 늘어나는 요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정 사목의 봉사자로

최명희 젼마 \_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서울남부구치소로 처음 발걸음을 옮기던 날, 의식하지 못했지만 긴장하였고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분들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의 행동도 일반인을 만나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책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저도 모르게 수용자들에 관해 그릇된 선입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봉사하게 된 것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이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는 것이 곧 나를 찾아 주는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할 말이 있어야 하니까요. 교정 사목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저희 본당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께서 후원자 모집 미사를 드리러 오신 때였습니다. 그 계기로 후원을 하게 되었고 소식지를 통해 봉사자 교육이 있는 것을 보고, 이때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게 3명의 대녀가 생겼습니다. 대녀들과 함께하진 못하지만, 미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찬미드리며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용자의 대모가 되었던 첫 번째 영세자는 조용하고 얌전한 자매였는데 미사 때 서너 번 본 것뿐이지만 세례식 때 대모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축하도 못 해주고 짝한 마음에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2번의 서신을 교환했는데 참 고마워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행동할 수 없지만, 하느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지내자 했습니다. 먼 후일 예수님 안에서 만나자고 했던 말에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다니면서 든 생각은 저희가 수용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봉사하는 의미가 나뉠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니까요.

이곳의 수용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저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시간이 되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미사 집전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신부님들, 봉사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 제 자리를 지키게 해 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 더 행복한 길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직업훈련 화훼장식과 바리스타 훈련을 받으러 서울구치소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오니 많이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수업도 받고 방도 함께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오늘은 학습실에서 간단한 꽃다발 만들기와 자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직업훈련 받으면 교육비와 재료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다행히 교육비와 재료비 모두 국비 지원이라고 하여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더 행운인 것은 꽃(생화) 비용이 정말 매우 비싼데, 사비로 이 과정들을 배우려면 비용 부담이 컸을 것을 저는 국비 혜택을 받아 교육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와서 매주 금요일 오전에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와는 조금 다르지만, 미사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신부님과 봉사자분들과 여러 후원해주시는 것으로 주셨던 빵, 특히 햄버거는 특별한 선물 같았어요. 주셨던 장미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직업훈련을 종괄하시는 계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꽃을 사는 사람, 꽃을 받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꽃에서 나오는 아로마 향을 제일 많이 맡는 사람은 꽃을 만지는 사람이라며, 여러분의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하시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길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리라고 기도합니다.

2024.07.08.

카라리나 드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타 교정시설로 이송 간 자매님이 현대일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2024년 제25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안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마태 25,36)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을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들과 같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교정사목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24년 9월 5일(목)~12월 5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 소 :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 교육비 : 10만원 / 우리은행 1005-903-307477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신 청 : 2024년 8월 30일(금)까지 ☎ 02-921-5093 / 010-3732-5093)
- 교육일정
  - 1) 온라인 교육 : 15~30분 내외 (교육 기간 중 시청 가능)
  - 2) 영상 프로그램 : 네이버 밴드

회기	날짜	강의 내용	강사	소속
1	9월 5일 ~ 12월 5일	교정 봉사의 의의와 봉사자 격려	Bp.유경춘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2		청소년 교정시설 소개	Fr.유상철 /최불암	살레시오회 /배우
3		빈곤과 범죄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4		억울한 옥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윤성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5		교정봉사 / 사형수 / 사형제도 폐지	공지영	작가
6		출소 후 삶의 방향	김종민	출소자 형제



2) 심화 교육 : 2024년 9월 5일(목)~12월 5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교정사목센터 2층 배움터

회기	날짜	강의 내용	강사	소속
1	9/5(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개	Fr.정민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2	9/12(목)	수용자, 수용자 가족, 범죄 피해자와의 상담심리를 통해 본 그들의 이해	Sr.최인형	노틀담수녀회
3	9/19(목)	고봉중고등학교/소년분류심사원	Fr.최남식	살레시오회
4	9/26(목)	범죄와 교정	이백철	前 경기대 교수
	10/3(목)	개천절로 교육이 없습니다		
5	10/10(목)	누명과 재심	장동익 박준영 변호사	출소자형제 인권변호사
6	10/17(목)	범죄와 형벌, 인권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7	10/24(목)	교정시설의 이해	강군오	前 서울남부교도소장
8	10/31(목)	가톨릭 교육에서 바라보는 수용자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엄기홍	더폼다 교육공동체
9	11/7(목)	교정사목과 사회교리	Fr.송정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10	11/14(목)	사형제도	Fr.현대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11	11/21(목)	시설참관		
12	11/28(목)	현장 활동 사례	대표 봉사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3	12/5(목)	파견 미사	Fr.현대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상기 프로그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2024년 9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제25회 2024년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 일시: 2024년 9월 5일(목)~12월 5일(목) \* 장소: 교정사목 센터 \* 교육비: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소식지 6~7면을 참고해 주세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채널

### ● 행사 알림

- 8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8월 6일(화)~9일(금)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 고봉중고등학교
- 8월 14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8월 20일(화)~21일(수), 23일(목)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4기 인성교육
- 8월 21일(수)~23일(금) 한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사제·수도자 총회 / 춘천교구 가톨릭회관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6/17~7/15)

2024년 6월~7월에는 배춘자 크리스티나, 송애리, 이기영 프란치스코, 이영순, 이윤수, 이형일 프란치스코하비에르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나은 마리아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후원자의 자녀(초등2)가 교정사목의 소식지를 보고 “이 돈으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갇혀 지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며 지금까지 저금통에 저금했던 6천 원을 전부 기부해달라고 전해왔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후원자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7면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